

북한과 디스토피아 - 'зом비 국가' 표상을 중심으로

복도훈*

1. 서론: 이데올로기적인 거울상으로서의 남한과 북한
2. 'зом비 국가' 북한
3. 통일 디스토피아
4. 북한문학과 디스토피아적 상상력
5. 북한은 최적화된 зом비 국가인가, зом비를 방어하는 최적의 국가인가
6. 결론: 전지구적인 '예외상태의 예외상태'의 북한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전지구적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재생산되는 북한에 대한 일련의 디스토피아적인 표상들 그리고 'зом비 국가'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전지구적 체제에서 북한은 오늘날 'зом비 국가'로 상상된다. 특히 미디어에서 북한 인민은 주권자에게 로봇처럼 절대복종하는 신민이나 기아와 탈출 속에서 '호모 사케르'에 가까운 зом비로 비유되고는 한다. 그렇지만 이 논문은 'зом비 국가' 북한의 이미지가 북한에 대한 실상보다는 북한을 대하는 전지구적 체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방법론에 입각해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통해 북한을 зом비로 비유하는 국내외의 각종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 소설과 영화, 신문기사 등을 다양하게 검토했다. 그럼으로써 이 논문은 북한을 зом비 국가로 간주하는 시각에 내포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된 정치적 상상을 독해하고자 했다. 특히 맥스 브룩스의 포스트 좀비 아포칼립스 소설인 『세계대전 Z』는 전지구적 좀비사태에 대응하는 북한을 모호하게 다룬다. 이 소설에 따르면 북한은 좀비사태에 가장 체계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로 전 인민이 땅굴 속에서 좀비로 변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좀비 국가 북한은 전지구적인 세계체제가 정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라면 어디까지나 예외상태로 남아있어야만 하는 증상적인 국가인 것이다.

(주제어: 좀비, 북한, 과학환상소설, 정치적 상상, 예외상태)

1. 서론: 이데올로기적인 거울상으로서의 남한과 북한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2016)이 천만 이상의 관객을 끌어 모으면서 흥행가도를 한창 달리고 있을 무렵인 2016년 9월 초,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례적으로 남한의 재난영화에 대해 흥미로운 이데올로기적인 논평을 내놨다. 『메아리』는 “미국 할리우드 재난 영화에 밀려 제대로 상영되지도 못한 남조선 영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남한에서 “재난영화들이 유독 큰 인기를 끄는 이례적인 현상”을 두 편의 영화인 〈부산행〉과 〈터널〉(2016)을 통해 조명한다. 이 논평은 〈터널〉과 〈부산행〉의 참사와 재난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남조선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데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 후, 구체적으로는 두 영화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능력을 신랄히 폭로하였다”고 쓰고 있다. 이어지는 논평은 좀 더 자세하게 두 영화의 무대인 KTX와 터널에 초점을 맞춰 그것들을 ‘상징’으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두 영화가 재난을 당한 고속열차와 지옥 같은 동굴을 기본 무대로 설정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고속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떠드는 남조선이 직면한 심각한 처지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앞날을 느끼도록 해준다.” 북한의 선전 매체에 따르면 남한은 ‘생지옥’이다. “박근혜가 집권한 후 남조선이 더욱 사람 못살 인간 생지옥이 됐다.” 그리고 기사는 마지막으로 남한에서 재난영화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 다소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평을 마무리한다. “그래서 지난 시기 인기 없던 재난물 영화가 관객들의 대인기를 끄는 이례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메아리』는 〈부산행〉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면서 ‘좀비’가 그들에게는 마치 생소한 단어인 것처럼 취급해 괄호 안에 별도로 소개한다. 〈부산행〉은 “부산행 고속열차를 타고 가던 주인공이 순식간에 좀비(의식은 없이 몸만 움직이는 사람모양을 가진 괴물)들에 의해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되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내용”의 영화이다.¹⁾ 북한의 사전에는 좀비 대신 ‘산송장’이라는 단어만 있다.²⁾ 한 탈북자 출신의 교수는 북한체제를 ‘극동아시아의 좀비 국가’로 명명한 독일주간신문지 〈디 자이트〉(Die Zeit)의 외신을 소개하면서 좀비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좀비란 죽어서 허울만 남았지만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시체를 말합니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산송장입니다.”³⁾ ‘좀비’는 북한에서 남한 영화에 형상화된 정치사회상을 비판할 때 동원

1) 국내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금지된 『메아리』의 기사(2016.9.3) 인용문은 다음 기사에서 가져왔다. 조성준, 「北, 부산행·터널 흥행은 ‘박근혜 정부 무능’때문」, 『조선일보』, 2016.9.18.

2)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2017 증보판)에는 ‘산송장’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사람다운 구실을 전혀 못하면서 겨우 목숨이나 붙어있는 존재를 알잡아 이르는 말.”

3) 김현아, 「좀비 국가」, 『자유아시아방송』, 2011.2.7.

되는 용어였지만, 다른 맥락에서 북한의 체제를 강렬하게 묘사하고 비판하는데 활용되는 비유적인 어휘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 남한이 북한에 대해, 서로가 서로를 ‘좀비’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⁴⁾ 이 논문은 국내외 디스토피아, 좀비 아포칼립스 문화와 영화, 신문기사 등에 재현된 북한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표상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좀비 국가’ 북한 이미지-표상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논문은 북한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아포칼립스적인 이미지-표상을 재생산하는 문화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 전지구적 체제의 무의식의 한 단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좀비 국가’ 북한

이 논문에서 인용되는 기사와 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북한을 ‘좀비 국가’로 비유하는 습속과 관행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해졌다. 이에 따르면 남한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또 전지구적인 세계체제에서 볼 때, 고립되고 위험한 폐쇄국가이자 세습왕조인 북한은 체제, 통치이념, 인민 모두 좀비 이미지로 비유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래로 대규모 원조가 끊기고 미국과 UN의 대대적인 무역봉쇄상태에서 북한체제는 이미 국가로서의 기능이 일부분 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를 어떤 식으로든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주체사상과 김일성 헌법은 국가지도자의 시신을 영구보존함으로써 비록 자연적인 몸은 죽었지만 주권적인 몸은 불사(不死)임을 대내외에

4)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과 〈서울역〉에 대해서는 복도훈, 『빛집의 도착적 유대, 또는 속죄의 판타지 (없는) ‘좀비민국’의 아포칼립스』, 『문학과 영상』 제18권, 2017 참조.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인민은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폭군적인 세습 통치자의 이데올로기적 호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열렬한 광신도이거나 반대로 공포정치의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속되는 불만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통치자, 당과 군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신민(subject)으로 묘사된다. 거기에다가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시절 이래로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했던 탈북자 난민의 증언과 수기는 예외상태에서 목숨뿐인 삶을 겨우 지탱하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로서의 탈북난민의 처지를 전파하는 바, 탈북난민의 '호모 사케르'적인 처지를 얼마든지 절대적 희생자로서의 좀비로 비유할 공산이 크다.

다시 말해 첫째, 이미 상징적으로 죽었으나 자신이 죽은 지도 모르는 체제, 둘째, 이러한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죽은 영도자의 시신을 안치하고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영생을 도모하는 통치이념, 셋째 이러한 이념에 집단적인 열광으로 복종하거나 무기력하게 따르는 인민의 형상 덕택에 북한은 '좀비'로 쉬이 비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유는 그것의 원관념인 현실을 유력하게 해석하는데 동원되는 것인 동시에 그 현실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과 결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편에서 전지구적인 공공의 적('악의 축')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체제의 운용, 통치 이념의 활용, 인민들의 삶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한층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라면, 북한을 해석하기 위해 동원되는 비유는 북한의 실상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은폐하는데 복무하기 십상이다. '좀비'도 북한의 실상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은폐하는데 동원되는 은유이기 쉽다.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이 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대상에 대

한 앎의 노력이 실제적인 앎의 증가가 아닌 환상의 증가에 도리어 복무할 수 있다는 것, 즉 앎이 환상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주체가 대상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얻게 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는 주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공산이 크다. 이것이 바로 라캉이 말하는 ‘증상(symptom)’이다. 이것은 달리 말해 ‘믿음’과 ‘지식’ 간의 물신주의적 분열(‘나는 알고 있어… 그럼에도’)에 근거하고 있다. 플라텐 돌라르는 18세기 유럽의 세속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근대적 주체는 자신이 속한 체제를 파괴하거나 분열을 조장할 독재와 전제에 대한 공포를 무제한적인 향락을 누리는 동방(orient)과 전제군주에 대한 리비도적 투사를 통해 구축할 수 있었음을 밝힌다. 이를 간단히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우리 체제가 민주적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권력이 전제적임을 믿어.’ 그러나 이 전제적 권력은 외부(동방)에 위치해야 한다. 체제 내부의 모순을 외부의 이미지에 투사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타자의 실상이 아닌 믿음과 지식 사이에 분열된 주체의 증상이다.⁵⁾

말하자면, 북한(체제, 이념, 인민)을 좀비로 비유할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북한이 좀비 국가라는 또렷한 실상보다는 북한을 좀비 국가로 명명하는 주체의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이다. 물론 북한은 외계인이나 로봇, 좀비가 거주할 법한 외계보다도 지구인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국가이다. 헤이즐 스미스는 북한을 “우주공간에 있는 무언가” 외계인으로, “김씨 지배 가문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로봇 같은 ‘백만명의

5) M. Dolar, “The Subject Supposed to Enjoy”, A. Grosrichard, *The Sultan's Court: European Fantasies of the East*, trans by Liz Heron, London & New-York: Verso, 1998, p. x v.

병력”이 상시 준비되어 있고 2400만 북한 인민이 “젤리 형태로 냉동된” 사회로 보는 등 “북한의 괴상함”에 “대료되어 있”는 전 세계의 환상적인 응시와 거기서 재생산되는 ‘캐리커처’를 문제 삼고 있다.⁶⁾ 그의 저서에는 좀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좀비라는 캐리커처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가 북한을 ‘좀비 국가’라고 명명할 때, 거기에는 오로지 대상에게 투여한 주체의 환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환상에는 최소한의 실제적인 지식이 파편화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상상적인 비유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북한이 좀비 국가라는 비유를 확증하는 방식으로 지식이나 환상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좀비라는 비유가 주체와 대상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환상과 지식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경우의 수를 검증해보려고 한다. 이데올로기적이든 편집증적이든 환상은 그것을 대상(타자)이 주체로 되돌려줄 때, 전복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북한은 SF(과학환상소설)에서도 어버이 수령이 인민들을 승냥이로 비유되는 사악한 세계체제(주로 미국과 일본)의 포위망으로부터 양떼로 보호한다는 식의 피포위적인 요새의 환상을 구축하는 국가이다.⁷⁾ 주목할 만한 한 선형연구를 참조하면 북한문학에 나타난 적(敵)으로서의 미국 표상은 해방기에서 김정은 체제에 이룰수록 강도가 더해지는 측면이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의 공격적인 선군 담론에서 ‘미국’은 ‘격멸과 멸망의 대상’으로서의 미제로 그려진다.⁸⁾ 흥미롭게도 이것은 그 즈음의 국내외의

6) 헤이즐 스미스, 『장마당과 선군정치』, 김재오 역, 창비, 2017, 21, 39, 64, 39쪽 순으로 인용.

7) 복도훈, 『북한 과학환상소설과 정치적 상상의 도상(icon)으로서의 바다』, 『국제어문』 제65집, 국제어문학회, 2015 참조.

8) 오태호, 『북한문학에 나타난 ‘미국’ 표상의 시대별 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29집, 한국근대문학회, 2014, 107쪽.

언론보도의 수사와 여러 문학적 표상에서 북한이 상당수 '좀비 국가'로 그려지는 것에 상응한다. 핵공격에 의한 '격멸과 멸망의 대상'(미국)과 '좀비'(북한)는 전면적인 절멸이라는 아포칼립스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을 '좀비 국가'로 비유하는 미국이나 남한의 패권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체제의 위협이란 오히려 '북한'에게는 자신의 요새를 포위하는 좀비 떼로 비유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부산행>에 대한 『메아리』의 논평은 의미심장하게도 북한을 '좀비 국가'로 남용되게 비유하는 용법을 '메아리'로 되돌려주려는 이데올로기적인 방어로 읽을 수도 있다.

3. 통일 디스토피아

북한을 '좀비 국가'로 비유하는 습속은 비단 남북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을 비롯한 제반 현실정치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 또한 '좀비 국가'라는 비유가 문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또 그러한 비유를 낳게 한 토대와 상상의 다양한 벡터를 살펴보고 좀비의 비유와 근친성이 있는 어휘들을 가능한 한 추출해보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가상의 미래로 재현된 북한에 대한 문학적 표상을 검토하고, 그 연장에서 '좀비 국가'로서의 북한 표상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문학에서 북한에 대한 미래 표상은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한반도의 정치지정학적인 상황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가상의 미래에 대해 쓴 디스토피아 음화(陰晝) 두세 편을 먼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장강명의 장편소설 『우리의 소원은 전쟁』(2016)은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이 된 이후의 가상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소설은 통일 이전에 “불량 국가, 막장 국가”였던 북한은 “김씨 왕조가 붕괴된 뒤” “국가라는 탈을 간신히 쓴 약육강식의 무정부 사회”이자, 특히 “좀비 국가”로 변했다고 쓰고 있다.⁹⁾ 장강명의 소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남북통합의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이 만약에 통일이라는 사건 또는 실재(The Real)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을 디스토피아로 형상화했다.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디스토피아란 ‘군벌이자 재벌’인 조선해방군의 잔존세력이 자신들의 생존과 권력의 확장을 위해 비밀리에 마약을 대량으로 생산해 과거에 파놓은 땅굴을 이용해 남한으로 내려 보내고 그 외중에 파벌 간의 잔혹한 세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겨나는 약육강식의 살벌하고도 끔찍한 현실이다. 마약이 거래되는 통일 이후의 현실이라는 장강명의 디스토피아적인 비전은 물론 국가적으로 마약을 지배하고 복용하는 현재 북한의 현실에 대한 취재와 증언으로부터 얻어진 다소 불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구축된 것이겠다.¹⁰⁾ 이 소설에서 ‘마약은 물론 남북통일의 살벌한 현실의 압력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환상의 대리물로 변용된다. 그런데 해체된 북한 군부의 잔존세력이 마약밀매로 생존을 도모한

9) 장강명, 『우리의 소원은 전쟁』, 예담, 2016, 11쪽.

10) 예를 들면 김종원, 『김정은, 북한군 마약 복용 ‘좀비군대로 만들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2014.7.11. 기사에 따르면 외화벌이를 위해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고 아편을 생산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마약을 군인들에게 복용시켜 ‘좀비군대로’ 만들려고 기획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관심은 기사의 신빙성 여부가 아니라 마약을 복용해 절대복종과 전투력을 발휘할 북한군을 ‘좀비군대로’ 비유하는 기사의 수사법이다. 이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 헤이즐 스미스는 북한의 마약생산과 밀거래 혐의가 그러한 혐의를 내놓는 미국 정보 보고서들조차도 그 증거가 여전히 불확실한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고 신중히 말한다. 헤이즐 스미스, 『장마당과 선군정치』, 58쪽 참조.

다는 『우리의 소원은 전쟁』의 스토리는 작가도 밝히고 있듯이 그보다 7년 전에 출간된 이응준의 장편소설 『국가의 사생활』(2009)에게서 받은 중요한 영향이기도 하다.

『국가의 사생활』에는 명시적으로 ‘좀비’라는 어휘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남북통일 이후 조국이 사라져버린 북한 인민의 삶은 마치 좀비처럼 “이미 죽었는데도 살아가고 있는”¹¹⁾ 것으로 참혹하게 묘사된다. 이 소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한으로의 마약밀거래를 둘러싼 갈등 끝에 주인공 리강의 맞은편에 있는 반동인물 오남철이 페스트균을 담은 물품을 대량살포 하려던 계획이 드러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국가의 사생활』에는 ‘좀비’와 가족유사성을 지니는 단어나 어휘가 적어도 두 개 정도 등장하고 있다. 하나는 방금 언급한 ‘페스트’이며, 다른 하나는 금수산 의사당에 안치된 김일성 주석의 ‘미라’이다.

이러 장엄한 혁명가가 울려 퍼지는 대단히 넓고 어두운 강당. 그 중앙에만 집중된 분홍색 빛의 한가운데 놓인 유리관 속에 신의 미라가 안치되어 있었다. 러시아 방부 처리사의 솜씨 덕에 김 주석의 시신은 눈을 뜨고 일어날 것만 같았다.”¹²⁾

사회주의 100년 역사에서 레닌 이래로 사회주의 지도자의 신체를 영생하는 존재처럼 또는 부활이 가능한 파라오처럼 미라로 방부 처리하는 전통은 분명히 비사회주의권 사람들에게는 매혹적으로 비춰질 것이다. 미라로 만들어진 사회주의 지도자의 신체는 자연적으로 부패를 면할 수 없는 신체를 넘어서 영속하는 주권적인 신체를 뜻하는 것¹³⁾으로, 이것

11)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49쪽.

12)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120쪽.

13)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창비, 2012, 104쪽.

은 영국의 철학자 존 그레이에 따르면 사회주의판 ‘물질적 영지주의’의 구원론과도 상통한다. 전통적인 영지주의에서 구원이란 조물주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사악한 물질적 세계로부터의 비물질적인 영적 구원을 뜻했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에서 구원은 반대로 “집단적이고 물리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인류를 자연에서 구원하는 것이다.”¹⁴⁾ 물론 그 구원은 영도자의 이끄심으로 가능한 것이겠지만, 만일 『국가의 사생활』에 재현된 미래의 북한처럼 영생하는 영도자가 이끌 나라와 국가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가 사라지면 막대한 유지비와 보수비가 드는¹⁵⁾ 영도자의 미래 관리 또한 존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눈을 뜨고 일어날 것만 같’은 김 주석의 시신 묘사에서, 체제 붕괴 이후 영도자의 신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과 영도자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던 인민의 신체 또한 부패를 면하지 못한다는 상상을 해볼직 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라면 체제붕괴 후 북한 인민은 마치 좀비처럼 육괴(肉塊)됨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상상된다.

『국가의 사생활』을 출간한 지 5년이 지나 이응준이 발표한 『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2014)는 앞의 소설에 상응하는 가상의 르포르타주이자 논설로, 성부 김일성, 성자 김정일, 성령 주체사상이 더는 없는 ‘벌거벗은 임금’ 김정은 정권의 현재 등으로부터 남북통일 디스토피아의 모습을 유추하고 있다. 책의 후반부, 작가와의 대담에서 탈북자 출신의 기자 주성하는 이렇게 말한다. “통일은 죽음이다.”¹⁶⁾ 이 말은 통일이 죽음을 방불케 하는 디스토피아를 가져온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을 상상하면 고통스러운 것처럼 남북한 사람들

14) 존 그레이, 『불멸화위원회』, 김승진 역, 이후, 2012, 209쪽.

15) 광대중, 「김일성 시신 처리과정을 아시나요?」, 『데일리NK』, 2005.8.15.

16) 이응준·주성하, 「고래 배 속에서의 촛불 대담」, 『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 반비, 2014, 144쪽.

이 굳이 의식적으로 ‘대박’ 통일의 미래를 떠올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통일은 남북한 체제와 인민에게 재앙의 정치적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으로 주인공 일행이 2063년 근미래의 한반도(난민, 총기소지, 지구온난화)를 여행하는 다크투어(dark tour) 소설인 정지돈의 중편 『작은 겁쟁이 겁쟁이 새로운 파티』(2017)에서 북한의 평양은 ‘과거에 만들어진 미래 도시’처럼 음산하게 묘사되어 있다. 남포까지 연결된 지하 도로 아래의 지하 감옥에는 “절지동물처럼 지하에서” “시체를 파먹으면서” 살거나 “지하 주차장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을 습격”하는 좀비와 같은 수감자들에게 대한 “괴담”이 떠돌고 있다.¹⁷⁾ 북한은 한국의 가장 젊은 작가의 상상력에서도 디스토피아적인 좀비의 비유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전쟁, 통일에 대한 양가적인 공포를 좀 더 직접적으로 좀비의 재앙과 연결시킨 좀비 아포칼립스 소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정명섭의 장편소설 『폐쇄구역 서울』은 하드보일드 탐정소설의 서사적 외관과 좀비 아포칼립스의 모티프가 결합된 소설로, 통일 디스토피아의 좀비 아포칼립스 버전이라고 할 만하다.¹⁸⁾ 소설에 따르면, 극동아시아의 불안한 정세가 극에 달하던 때인 2016년 4월 4일, 북한 군사조직 ‘구국군사위원회’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핵전쟁은 서울에서는 180만, 평양에서는 30만의 사망자를 낳는데, 재앙은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만은 않는다.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사망자들이 몇 시간 후 눈을 뜬 것이다. 그러고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공격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에게

17) 정지돈, 『작은 겁쟁이 겁쟁이 새로운 파티』, 스위밍풀, 2017, 88쪽.

18) 『폐쇄구역 서울』에 대한 본문의 분석은 다음 글의 일부 내용을 참조해 재구성한 것이다. 복도훈, 『재앙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는 삶과 세계, 그것이 우리가 맞이한 진짜 재앙이다』, 『자음과모음』, 2012년 여름호.

게 공격당한 사람들도 그들처럼 변했다. 초기에 감염자라고 불렸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좀비로 불리기 시작했다. (중략) 사람들은 서울을 특별 격리 구역 대신 '폐쇄 구역'이라고 불렀고, 그날의 참상은 '4·4사태'라고 불렸다. 서울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게다가 유엔의 신탁통치를 받던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정치적 혼란에 휩싸였다.¹⁹⁾

『폐쇄구역 서울』은 그로부터 8년 후의 이야기를 다룬다. 좀비들이 서식하는 특별 격리 구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 의뢰인이 요구하는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높은 수입료를 받는 '트레저 헌터'인 주인공 현준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쿠데타)가 소설 속에서 펼쳐진다. 소설은 현준이 대안가족을 만들어 트레저 헌터 일을 계속한다는 결말로 끝을 맺지만, 종말과 음모의 강한 기운은 오래 남는다.

『폐쇄구역 서울』은 한반도를 둘러싼 핵무장, 강대국의 정치적 압박, 남북한의 적대 등이 줄 법한 공포가 상상적으로 재현된 소설이다.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오히려 재앙 서사를 구상하게 만든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대재앙 이후 우리의 삶과 세계는 달라졌을까. 그러나 소설에 따르면 “가진 자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못 가진 자들도 변하지 않았다.”²⁰⁾ 대재앙 이후에도 삶과 세계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4·4 사태'라는 대재앙은 다른 말로 '통일'이기도 하다. 통일은 핵전쟁처럼 재앙의 시작일 수도, 남북한 인민의 삶은 좀비의 그것처럼 아귀다툼의 시작일 수도 있다. 『폐쇄구역 서울』에서 좀비가 비유하는 바는 무엇일까. 특별 격리 구역에서

19) 정명섭, 『폐쇄구역 서울』, 네오픽션, 2012, 9쪽.

20) 정명섭, 『폐쇄구역 서울』, 네오픽션, 2012, 154쪽.

만 운신하고 증식하는 육괴의 무리는 비단 남한 인민의 그것에 불과할까, 전쟁 이후에 남하한 북조선 인민과 전쟁으로 몰락한 남한 인민이 뒤섞인 육괴일까. 『폐쇄구역 서울』에서 비유로서의 좀비가 은폐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통일 이후에 현실이 어떻게 뒤바뀔지 몰라 두렵고, 픽션이 만든 저 가공의 지옥이 차라리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는, 통일을 굳이 상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아닐까.

4. 북한문학과 디스토피아적 상상력

남한 작가들의 상상력에서 통일 이후의 남북한의 세계는 디스토피아적인 재앙이 펼쳐지는 생명정치적 살벌한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떠할까? 북한문학에도 동시대 현실에서 미래를 유추하는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이 존재할까. 미리 말해보면 그런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좋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른바 사회주의적인 ‘물질적 영지주의’에서 구원이란 영도자의 인준을 받은 인민의 자력갱생으로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정복이란 특별히 북한의 과학소설, 이른바 과학환상소설의 기초가 되는 주요한 세계관으로, 잠시 주목해 볼만하다. 그것은 또한 북한에서 가상의 재앙이나 미래의 재난을 다루는 디스토피아, 재난소설이 등장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깊다. 미래를 재현하는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은 미래의 인간생활을 보여주는 독특한 <얼굴>을 가진 문학의 한 형태로서 세계를 정복하는 인간들에 의하여 더욱 휘황해질 미래에 대한 동경과 사랑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²¹⁾ 자연은 인간의 주체적 의지와 그것이 만든 기술로

21)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5쪽.

인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것이며, 반대로 자연과 기술이 인간을 지배할 수는 없다. 자연은 오직 인민의 주체적 의지를 담금질하여 강철 같은 사회주의 인간형을 만들기 위한 시련의 계기로만 존재할 뿐이다. 기술이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묘사하는 부르주아 어용문학의 “궤변”에 따르면,

오늘날 인간은 자기가 창조해낸 현대문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며 자기 창조물의 중압에 질식되어 필연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실용주의에 물젖은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사회의 마지막에 온듯한 절박감>을 가지게 한다느니, <21세기의 위기>니, <력사의 종말>이니 하고 작품에서 떠들기까지 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현대부르주아어용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바로 이러한 <인류위기사설>을 대대적으로 퍼뜨림으로써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비관주의, 염세주의에 빠져 미래에 대한 신심을 잃고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투쟁의욕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²²⁾

『국가의 사생활』에는 북한의 예술(만화)과 관련된 진술이 단 한번 등장하는데, 물론 소설적인 가상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북한문학의 현실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북조선의 만화들은 공상의 세계를 다루지 않았으며 특히 로봇이 등장하지 않았다. 만화란 자고로 사람의 심성을 풍요롭게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차가운 로봇은 이를 방해하며 또 어떠한 역경일지라도 인간이 직접 해결해야지 로봇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아름다운 취지에서였다.”²³⁾ 그렇지만 과학환상문학에는 로봇의 힘을 빌려 인간이 비주체적인 방식으로 역경을 돌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방식으로나마 묘사한 작품들과 인간화된 로봇이 사태

22)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31-32쪽.

23)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171쪽.

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 과학환상문학 작품도 분명히 있다.²⁴⁾ 그렇다면 북한문학에는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이 전혀 없는 것일까.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른바 북한의 ‘반체제문학’에는 북한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이미지가 과장되게 그려져 있긴 하다.

몇 년 전에 국내에 떠들썩하게 소개된 적 있는 북한의 반체제 작가인 ‘반디’의 단편소설 『유령의 도시』에는 좀비는 아니더라도 유령이 출몰한다. 이 소설은 “아이들에게 무서운 가상의 존재나 물건, 혹은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것이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인 “어비”²⁵⁾가 수시로 출몰해 주인공과 그의 아이를 환영과 환청으로 괴롭히고 명령한다는 내용이다. 『유령의 도시』에 묘사된 평양은 소박한대로 고골리의 단편의 무대인 유령도시 빼제르부르그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 소설의 기법적인 환상은 북한문학에서 허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혁명성을 띤 인민의 주체적인 환상과는 거리가 멀겠다. ‘평양은 소설에서도 인용되는 『공산당 선언』의 문장이 환기시키는 것처럼, 인민이 아니라 마르크스와 김일성의 동상의 유령이 배회하는 도시이다. 그렇다면 소설에서 ‘어비’의 정체는 분명해진다. ‘어비’는 평양 광장에 있는, “면상이 온통 털 속에 묻힌 마르크스와 매섭게 입을 다문 김일성의

24) “과학환상동화 『이돌이 형제와 <기계사람>』의 종자는 아무리 발전된 자동기계라고 하여도 사람의 지혜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과학환상동화 『이돌이 형제와 <기계사람>』의 줄거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 핵은 아무리 신기한 자동기계라고 하여도 사람의 지혜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작품 『태양도시를 꾸리는 박사기계들』에서 의인화된 수학, 물리학, 화학 자동로봇-박사기계들이 도시의 새로운 열원천을 개발하기 위해 탐구하는 이야기며 고갈되어가는 도시의 열문제를 태양에너지기를 종합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출로를 찾고 새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안을 내놓는 물리수학박사기계의 이야기 등은 모두 과학적 환상에 토대하고 있다.” 인용은 차례로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268, 269, 272쪽.

25) 반디, 『유령의 도시』, 『고발』, 조감제닷컴, 2014, 57쪽.

초상화'의 유명으로, 아이는 '어비'로 인해 급기야 병에 걸려 몸져누울 정도로 어머니인 주인공은 아이를 돌봐야하는 처지에다가 그 자신도 '어비'의 환영에 시달린다. 하지만 당 간부인 이들 가족에게는 반드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광장행사가 있다. 이 두 '유령'은 주인공에게 호령한다. "나가라던 짝소리 말구 나갈 거지 무슨 허튼 생각이야. 이게 내 도시지, 네 도시 줄 아니?"²⁶⁾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인공이 인민의 호출을 알리는 방송이 나간 지 "불과 45분 안에 도시에 널려 있던 100만의 군중이 광장에 모여"들게 만든 힘의 정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다. "그 어떠한 힘이 이 도시로 하여금 이런 불가사의한 사변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일까?"²⁷⁾

만일 45분 만에 100만의 관중을 도심 한복판으로 모여들게 만드는 '어비'의 힘이 과장이 아니라면,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 <월드워Z>(2013)에서 북한으로 무기를 밀매하다가 적발, 수감된 CIA요원이 주인공 일행에게 들려주는 말도 완전히 황당한 과장만은 아닐 것이다. 그에 따르면 좀비가 출몰했을 때 "북한은 2300만 인민의 이빨을 모조리 뽑아버렸어. 하루도 안 걸려서 말이야. 거의 뭐 세계 신기록이지." 픽션은 픽션이더라도, 실제로는 어떨까. 한 신문은 영화의 "이런 장면이 북한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라고 물으면서 탈북자 세 명의 대답을 직접 들려주고 있다. 2300만 인민의 이를 뽑는다는 영화의 설정에 대해 탈북자들은 이구동성 "불가능한 일"이고, 만일 북한당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좀비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 때 북한 당국이 주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궁하면서 탈북자들은 죽는 시늉을 할 수도 있고, "김정은이

26) 반디, 『유령의 도시』, 『고발』, 조갑제닷컴, 2014, 81쪽.

27) 반디, 『유령의 도시』, 『고발』, 조갑제닷컴, 2014, 77쪽.

먼저 본인의 이빨을 뽑는 장면을 공개한다면 상당한 반향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²⁸⁾ 게다가 이러한 가정은 다만 상상 속에서의 일만도 아닌 것 같다. 주성하는 2014년에 있었던 전세계적인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맞물려 북한에서 무려 세 달 동안이나 계속된 에볼라 방역 소식을 전하면서 〈월드워Z〉를 떠올렸다고 말한다. 에볼라 방역소동을 벌이는 “요즘의 북한을 보니 에볼라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만 있다면 진짜로 주민의 이라도 다 뽑아 버릴 기세다.”²⁹⁾ 이처럼 북한에 대한 ‘좀비 국가’의 이미지는 대중문화의 표준적인 상상력과 맞물려 한층 재생산되고 있다. 이쯤이면 〈월드워Z〉의 원작이자 베스트셀러인 맥스 브룩스의 포스트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대전Z』(2006)에서 표상된 북한의 이미지를 분석하지 않을 도리란 없겠다.

5. 북한은 최적화된 좀비 국가인가, 좀비를 방어하는 최적의 국가인가

맥스 브룩스의 『세계대전 Z』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바야흐로 전대미문의 것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는 좀비와의 전면전에 돌입한다. 소설은 전 세계의 좀비를 거의 박멸하고 난 뒤 각국의 생존자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증언에서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 변형되고 재편성된 지구행성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많은 것들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뤄진다. 이 장에서는 이 새로운 전쟁에 내포된 전대미문의 의미를 카를 슈미트의 『정치적인

28) 광창렬, 『영화 〈월드워Z〉에선 북한이 2300만 인민의 이빨 뽑아 ‘좀비 감염’ 막았다는 데...』, 『조선일보』, 2013.6.29.

29) 주성하, 『김정은은 에볼라를 왜 그리 두려워할까』, 『동아일보』블로그-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2015.2.6.

것의 개념』(1932)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슈미트는 자신의 책에서 ‘인류를 위한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³⁰⁾ 슈미트에게 정치적인 것의 핵심인 적과 동지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을 전제로 하며, 전쟁도 그러하다. 슈미트에 따르면 적과 동지의 구분 불가능성에서 파생된 최후의 아마겟돈이나 모든 비인간적인 것의 절멸을 목표로 인류의 이름을 내 걸고 수행되는 전면전, 적의 전멸을 유도하는 전면전은 수행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세계대전 Z』는 슈미트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렇지만 슈미트가 혹시나 우려해하면서 상상했던 새로운 전쟁 개념을 소설로 썼다고 보아도 좋다. 그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전면전의 실현가능성’이다. 슈미트 식으로 말하자면 좀비는 정치적인 의미의 ‘적’이 아니다. 좀비는 그저 인류의 박멸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세계대전 Z’란 슈미트 식으로 말하면 ‘적’이 없는 전쟁이다. 최후의 좀비 한 마리까지 격퇴하는 것이 새로운 세계대전의 목표이다. 『세계대전 Z』의 한 장군이 말한 것처럼 “놈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싸울”³¹⁾ 것이기에, 인간도 살아있는 시체들과 최후까지 싸워야만 한다. 이것은 조지 W. 부시가 언급한 ‘무한전쟁’이며, 슈미트적인 “인류의 궁극적인 최후 전쟁”³²⁾인 것이다.

앞서 슈미트가 우려했던 ‘전면전의 실현가능성’은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류의 궁극적인 최후 전쟁은 한편으로는 ‘평화를 위한 전쟁’ 개념이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얼핏 들으면 전쟁보다 평화를 선호하는 반전담론이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제한적 조건으로서의 소극적인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한마디로 평화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30) 카를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김효전 역, 법문사, 1992, 66쪽.

31) 맥스 브룩스, 『세계대전 Z』, 박산호 역, 황금가지, 2008, 427쪽.

32) 카를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김효전 역, 법문사, 1992, 44쪽.

제거해나가기 위한, 트로츠키의 영구혁명에 상응하는 영구전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평화와 전쟁의 구분, 동지와 적의 구분을 흐트러뜨리는 새로운 전쟁이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전쟁 개념의 현대적 버전이 바로 무한전쟁으로 불리는 ‘테러와의 전쟁’이다. 한마디로 적과 동지의 구별불가능성 때문에, 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적을 끊임없이 발명해야 하는 정당성으로서의 무한전쟁. 비인간적인 적의 박멸가능성에 대한 아마겟돈의 염원이나 국민에게서 비국민을 끊임없이 식별하고 적으로 발명한 다음 체계적으로 비인간화하는 주권적 정당성의 장치들(조르조 아감벤이 ‘내전’이라고 불렀던)이 이러한 무한전쟁을 가능하게 한다. 『세계대전 Z』는 때로는 ‘인류’의 이름으로 다른 인간들이 인간 아닌 어떤 것으로 규정되고 제거되는 시대의, 비인간적인 적의 박멸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망이 백귀야행하는 정치적인 묵시록이다. 『세계대전 Z』는 끊임없이 편집증적으로 적을 발명하고 제거하는 오늘날의 ‘새로운 전쟁’에 대한 우화인 것이다.

어쨌게도 남한의 평택이 좀비 바이러스의 유력한 진원지로 꼽히는 등 영화 <월드워Z>에서 남북한은 모두 괴상한 방식으로 재현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재현과는 다소 다르게 원작 소설인 『세계대전 Z』에서 가장 징후적으로 읽히는 대목 또한 북한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또한 『세계대전 Z』에서 수수께끼의 북한이, 유대계 미국 작가의 표준적인 시각의 ‘정치적 상상’(political imaginary)³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가와도 관련이 있다. 작가는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는 남북한에 대한 다소 부정확하거나 낡은 정보와 여전히

33) 수전 벅모스에 따르면 ‘정치적 상상’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지형학적 개념으로,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풍경이고, 하나의 구체적·시각적 영역으로서 그 안에 정치적 행위자들의 위치가 정해지는데” 일련의 이미지와 표상이다. 수전 벅모스, 『꿈의 세계와 파국』, 윤일성·김주영 역, 경성대 출판부, 2008, 24쪽. 번역은 일부 수정.

북한에 대해 가질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수궁 가능한 표준적인 시각을 뒤섞어 북한을 좀비와의 최후의 전쟁에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나라로 묘사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스파이들이 남한에서 유행이 지난 옷을 입거나 생필품의 가격을 묻는다고 한 대목은 확실히 실소를 자아낸다고 할 수 있겠고, 그 연장에서 북한 인민들 대부분이 남침용 땅굴에 숨어들어 좀비와의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나 반대로 모조리 “시체 로봇”(324쪽)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도 다소 시대착오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수준이하의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을 상상적으로 재현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지적한 서투른 묘사를 제외한다면 『세계대전 Z』의 북한에 대한 표상작업은 여전히 흥미롭다. 『국제정치이론과 좀비』의 저자는 전지구적인 좀비 바이러스의 발생에 맞서는 정치사회적인 체제의 유형을 설명하는 가운데 독재국가의 경우, 좀비 바이러스와 같은 “보건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독재국가는 이러한 보건 위기를 “인정했다가 사회 지배력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독재국가에서 재난으로 인한 인명 손실”이 다른 정치사회적인 체제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³⁴⁾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세계대전 Z』의 ‘독재국가’ 북한의 경우에는 별로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

『세계대전 Z』에서 생존자인 남한의 국정원 부원장(엄밀하게는 ‘국정원 1차장’) 최형철은 휴전선 너머의 조용한 북한을 가리키며 두 개의 가

34) 대니얼 W. 드레즈너, 『국제정치 이론과 좀비』, 유지연 역, 어젠다, 2013, 99쪽. 이 책은 좀비를 현실주의에서 신보수주의에 이르는 국제정치체제에 외삽한 결과를 사고실험으로 제시하여, 어떠한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좀비의 전 지구적인 확산에 대응하는지를 가능한다. 책의 기본적인 관점은 “좀비를 자본주의의 확산과 동일시하는”(91쪽) 자유주의 체제가 다른 체제보다도 비교적 좀비의 확산에 대해 가장 잘 대응한다는 암암리의 가정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좀비의 재앙적인 확산을 낳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정을 세운다. 하나는 무장한 전인민이 땅굴 속으로 들어가 좀비와 맞서 싸우려는 유일무이한 좀비 무풍지대로 북한을 가정하는 것이다. 소설과 영화에서 모두 북한은 전지구적인 좀비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이스라엘과 더불어 면제된 나라이다. 미국의 최우방인 이스라엘과 미국의 최적대국인 북한이 양극에서 좀비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된다는 설정은 흥미롭다. 다른 하나는 지하땅굴 속에 갇힌 2300만의 북한 인민 모두가 좀비가 되어버렸다는 보다 섬뜩한 가정이다(남한은 ‘부산에서 시작해 좀비에 의해 초토화되었다가 겨우 회복된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아무도 모르죠. 그 전염병을 격퇴하는 데 북한보다 대비가 더 잘된 나라는 없었어요. 압록강의 북쪽, 동해와 서해와 남쪽 국경을 지상에서 가장 철통같은 요새로 만들었으니까. (중략) 만약 우리가 처한 대참사에서 살아남 뿐 아니라, 승리하기까지 하는 나라를 꼽는다면 그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되겠죠.

아마 이 땅굴 속에서는 2300만 명의 좀비들,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면서 풀려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수척해진 시체 로봇들이 도사리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³⁵⁾

최형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추정컨대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중국을 통해 일찌감치 입수한 북한에는 “미치 알아차리기도 전에 압록강에서 비무장지대까지 인간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시다. 국가 전체, 북한의 남녀노소 모두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³⁶⁾ 『세계대전 Z』가 전지구적인 좀비 비상사태를 겨우 수습한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둔 채, 불길하게도 후자가 맞는 것이라고 가정해본

35) 맥스 브룩스, 『세계대전 Z』, 박산호 역, 황금가지, 2008, 차례로 318-319, 324쪽.

36) 맥스 브룩스, 『세계대전 Z』, 박산호 역, 황금가지, 2008, 321쪽.

다면, 북한은 인류가 좀비와의 최후의 아마겟돈에서 살아남은 이후에도 전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좀비 국가’가 된다. 최형철은 만일 좀비 국가가 아니더라도 북한 인민 2300만이 좀비 사태로 한꺼번에 남하할지도 모르는 또 다른 공포를 이야기한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북한 인민은 남한정부와 인민에게 과연 무엇으로 보일까(이것은 정명섭의 『폐쇄구역 서울』에서 남북전쟁으로 갑작스럽게 남하하는 북한 인민에 대한 공포에 상응한다). 선군정치의 나라 북한 인민은 모두 무장한 군대가 되어 좀비와의 전면전을 수행하기 위해 땅굴로 숨어들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들 자체가 땅굴에서 인류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할 2300만의 좀비로 변해버려 언제든 다시금 튀어나올 것일까. 좀비와의 전쟁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인 『세계대전 Z』는 희한하게도 좀비와의 전쟁이라는 예외상태가 종식된 이후에 유일한 예외로 북한만 불길하게 남겨놓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이러한 모호한 처리방식의 의도는 이 소설의 ‘정치적 상상계’에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를 재현하고 있는 방식과 함께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세계대전 Z』에서 공산주의 국가이자 좀비 사태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한 요새와 같은 나라였던 쿠바는 좀비와의 전면전 이후에 결국 “변영하는 자본주의 경제”(367쪽)가 태어나는 국가로 변모한다.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서 보자면 쿠바는 북한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어쩌면 그 이상으로 국가와 인민이 총동원되어 조기에 좀비 감염의 확산을 막을 정도로 훌륭한 체제이다. 쿠바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쿠바인구 절반 수준의 미국인 난민 500만 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의 일부가 낄낄팔이에서 거리 청소부까지의 일들을 도맡고 별도로 시장을 세우는 등 자본주의적 시장의 형태를 도입했고, 쿠바정부가 이들을 결국 통제할 수 없었던 데에 있다. ‘자본주의 혁명’이 끝난 뒤의 변모한

쿠바에서는 ‘체 게바라’의 유산이 모두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으로 묘사된다. 소설에서 ‘쿠바’에 대한 장은 흥미롭게도 처칠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민주주의란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를 제외했을 때 최악의 정부 형태다.”³⁷⁾ 한마디로 『세계대전 Z』는 미국 주도의 전지구적인 경찰 민주주의야말로 좀비 사태 이후의 유일한 국제정치체제임을 ‘쿠바’의 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북한과 쿠바가 상이한 정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적 상상’에서 두 나라는 엇비슷한 닻을 끌어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소설의 모호한 처리가 뜻하는 바는 이것이지 않을까. 『세계대전 Z』에서 좀비와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최후로 남겨진 ‘좀비 국가’가 으르렁거리면서 여전히 극동아시아의 한 귀퉁이에 엄연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6. 결론: 전지구적인 ‘예외상태의 예외상태’의 북한

이 논문은 북한에 대한 전지구적인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재생산되는 여러 가지 디스토피아적인 표상들, 재난의 이미지들 몇몇을 살펴보고 특별히 좀비 이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본론에서는 북한에 대한 좀비의 비유형상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는 국내외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 소설과 아포칼립스 영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북한을 좀비 국가로 간주하는 시각에 내포된 국제정치적인 상상, 곧 ‘정치적 상상’을 독해했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상상’은 그에 대한 대항적 이미지를 거울반사하기도 해서 북한 매체 『메아리』는 <부산행>에 대한 논평에서 남한을 ‘좀비 국가’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북한을 ‘좀비 국가’로 간주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이 북한체제에 대한 실상에 접근하는 것이 아

37) 맥스 브룩스, 『세계대전 Z』, 박산호 역, 황금가지, 2008, 368쪽.

나라, 오히려 북한체제에 대한 환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증상에 대한 정신분석을 방법론으로 전제했다.

한편으로 ‘좀비 국가’ 북한에 대한 통상적인 비유, 즉 몸은 살아있으나 정신은 살아있지 않고 조종을 당하는 ‘좀비 국가’로 보는 관점은,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단순화된 예시에 머무르지 않는다. ‘좀비 국가’라는 명명은 한편으로는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그것의 생성과 성장, 부패와 몰락을 가정하는 것으로, 그것은 북한에 대한 최근의 서방 자유주의 언론의 표준적인 표상에 그치지 않고, 우파 그리고 좌파에 이르는 여러 상상과 관점을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데올로기적인 호명에 시체 로봇처럼 절대적으로 순응하던 통일 이후의 디스토피아 소설에서 드러나듯이 극단적인 생존지상주의의 호모 사케르적 형상이 되든 간에 북한은 좀비 국가이며, 인민은 좀비 처지인 것이다. 이러한 도식화는 이미 한편의 포스트 좀비 아포칼립스 소설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세계대전 Z』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북한은 전지구적인 괴물인 좀비와의 대결에서조차도 그 체제의 존립과 관련되어 끝까지 수수께끼를 간직한 국가로 남는다. 그렇지만 본문의 분석에서 얼마간 환기되는 것처럼, 좀비들과의 최후의 전쟁에서 북한은 이 전지구적인 괴물이 남김없이 소탕되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아 지하 땅굴에서 2300만의 ‘시체 로봇’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를 잠재적인 적성(敵性) 국가로 암시된다. 따라서 슈미트가 말하는 ‘인류의 궁극적인 최후의 전쟁’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좀비 무풍지대의 북한을 조준한 상태로,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좀비의 창궐이라는 예외상태에서 북한은 ‘예외상태의 예외상태’로, 전지구적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구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예외상태의 국가로, 즉 ‘좀비 국가’로 남

아있어야만 한다. 물론 이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인 정세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역사적인 이미지-표상이겠다.

참고문헌

1. 논문과 단행본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창비, 2012.
- 반 디, 『고발』, 조감제닷컴, 2014.
- 복도훈, 『북한 과학환상소설과 정치적 상상의 도상(icon)으로서의 바다』, 『국제어문』 제65집, 국제어문학회, 2015, 73-100쪽.
- _____, 『빛집의 도착적 유대, 또는 속죄의 판타지 (없)는 ‘좀비민국’의 아포칼립스』, 『문학과 영상』 제18집, 2017, 7-31쪽.
- 오태호, 『북한문학에 나타난 ‘미국’ 표상의 시대별 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29집, 한국근대문학회, 2014, 85-115쪽.
- 이웅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 _____, 『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 반비, 2014.
- 장강명, 『우리의 소원은 전쟁』, 예담, 2016.
- 정명섭, 『폐쇄구역 서울』, 네오픽션, 2012.
- 정지돈, 『작은 겁쟁이 겁쟁이 새로운 파티』, 스위밍풀, 2017.
-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A. Grosrichard, trans by Liz Heron, *The Sultan's Court: European Fantasies of the East*, London & New York: Verso, 1998.
- 다니엘 W. 드레즈너, 『국제정치 이론과 좀비』, 유지연 역, 어젠다, 2013.
- 맥스 브룩스, 『세계대전 Z』, 박산호 역, 황금가지, 2008.
- 수잔 벅모스, 『꿈의 세계와 파국』, 윤일성·김주영 역, 경성대 출판부, 2008.
- 존 그레이, 『불멸화위원회』, 김승진 역, 이후, 2012.
- 카를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김효전 역, 법문사, 1992.
- 헤이즐 스미스, 『장마당과 선군정치』, 김재오 역, 창비, 2017.

2. 기타 매체

- 곽대중, 『김일성 시신 처리과정을 아시나요?』, 『데일리NK』, 2005.8.15.
- 곽창렬, 『영화 <월드워Z>에선 북한이 2300만 인민의 이빨 뽑아 ‘좀비 감염’ 막았다는 데...』, 『조선일보』, 2013.6.29.
- 김종원, 『김정은, 북한군 마약 복용 ‘좀비군대로 만들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2014.7.11.
- 김현아, 『좀비 국가』, 『자유아시아방송』, 2011.2.7.

- 조성준, 『北, 부산행·터널 흥행은 ‘박근혜 정부 무능’때문』, 『조선일보』, 2016.9.18.
- 주성하, 『김정은은 에볼라를 왜 그리 두려워할까』, 『동아일보 블로그-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2015.2.6.
- 복도훈, 『재앙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는 삶과 세계, 그것이 우리가 맞이한 진짜 재앙이다』, 『자음과모음』, 2012년 여름호, 421-425쪽.

Abstract

North Korea and Dystopia — 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 of a ‘Zombie State’

Bok, Do-Hoo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dystopian representations and the ‘zombie’ image of North Korea reproduced from a global perspective. Globally, North Korea is often imagined to be a ‘zombie state’ today. Especially in the media, the North Korean people are likened to zombies in parallel to the ‘homo sacer’ when spotlighting their escapades and starvation or their robot-like obedience to the sovereign.

This article, however,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image of North Korea as a ‘zombie state’ is more telling of the global system rather than the reality of the state. Through this premise, various dystopian novels, movies, and newspaper articles that portray North Korea as a zombie are examined. As a result, this article sought to understand the political imagination involved in the view of North Korea as a zombie state. Particularly, Max Brooks’ post-zombie apocalypse novel ‘World War Z’ deals with North Korea vaguely in response to global Zombie crisis. According to this novel, It is assumed that North Korea responds most systematically to the Zombie crisis or that the entire people are turning into zombies in underground caves.

In short, North Korea must remain in a state of exception for the world system to return to normal.

(Keywords: zombie, North Korea, science-fantasy fiction, political imaginary, state of exception)

논문투고일 : 2018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8년 7월 29일

수정완료일 : 2018년 8월 8일

게재확정일 : 2018년 8월 13일